



지난 9월 4일 (주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3060 사모블레싱 나이트가 열려 사모 200여 명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gracemi.com

2024 사모 블레싱 나이트 “사모의 삶, 목회의 사각지대”

**사모 3명 중 2명 우울증 경험
 6명 중 1명 자살 충동 느껴**

지난 9월 1일(주일) 오후 5시에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2024 사모블레싱 나이트가 열려 30대~60대 사모 220여 명을 위로하고 사명을 재확인했다.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여성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가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앞서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진행된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OC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와 8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행사로, 목회자와 동역하면서도 정체성의 혼란과 위기, 고립, 우울,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사모들의 애환에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했다.

2024 사모블레싱 나이트 1부 순서는 이창남 목사(OC교협 수석부

회장)의 사회로, 배기호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 기도, 2023년 사모블레싱 영상 상영, 김정호 목사(가스펠교회) 특별찬양에 이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사모가 행복해야 교회가 산다”(창 2: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목회는 절대로 목사님 혼자서 할 수가 없다. 가정의 행복할 수 있으려면, 돕는 베필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모님들의 협력과 내조가 없이는 절대로 목회는 안 된다. 아담에게 돕는 베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담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의미이다. 부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화와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했다.

“아내의 지원을 받으며 신학교를 다녔다. 아내마저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행복을 빼어가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기쁨에서 비롯되며 돕는 베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을 주신다.” 그는 “가난한 신학생부터, 전도

사, 작은 교회 담임을 거치며 32년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해 왔다”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행복은 어디서 오나? 영적인 즐거움이 임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 영적인 즐거움은 돕는 베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위로와 상급, 은혜이다”라고 격려했다.

예배는 한기홍 목사가 이끄는 합심기도와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위로’라는 주제로 윤우경 권사(OC기독교전도회 연합회 중경회장)가 이끌었으며, 조영석 목사와 이민우 전도사의 가스펠 찬양, 다민족연합기도회 소개에 이어 손문미 사모(미주장신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손 사모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정을 너희 자녀를, 너희 남편을 위해 울라’를 주제 구절로, “가시밭 길을 걷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주디 한 기자

→ 3면에서 계속

미성대 초대 총장, 유니온교회 원로 이정근 목사 별세

30년 사역 함생주의로 집약

미주성결교회 총회장등을 지내면서 미주한인교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정근 목사가 지난 9월 1일(주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이정근 목사는 1980년 9월 28일, 성경 복음의 불모지였던 LA 코리아타운에 유니온교회를 개척하여, 30년간 목회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LA지역 교회와 성결인들을 섬겼다. 유니온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미주성결교회 제1회 총회 안수자로 미주총회 총무와 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미주총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1941년 화성에서 태어난 이정근 목사는 1964년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던 중 만리현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성결교인이 됐다. 1968년 서울신대 학장 행정보좌를 하다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1972년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고 197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후 1979년 코비아성결교회를 개척하고 1980년 LA 코리아타운에 유니온교회를 개척해 2010년까지 30년간 시무했다.

그는 모교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도, 서울신학대, 에즈베리신학대, 조지프스신학대, 남침례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 취득, 철학박사 과정 이수)에서 계속해서 배움의 끈을 이어갔다. 조셉 리 기자 → 3면에서 계속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이정근 목사 ©유니온교회

텍사스 A&M 청년 집회 1,500명 이상 운집



뉴라이프 청년부가 주최한 부흥 집회가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텍사스 A&M 대학 캠퍼스에서 열렸다. → 관련 기사 8면. ©New Life Church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셀비의 광가성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고위임원의 고문 변호사
 (전)제마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권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리스

뱅크리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복음으로 통일 앞당길 고향선교대회

탈북자 복음화 대회, 이창교 목사 신승훈 목사, 이광훈 목사 및 탈북자 40여 명 참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오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탈북자 기독교 단체인 고향선교회와 연합하여 고향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선교대회 강사로는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가 나서고 한에스터, 신한 전도사, 이주은, 주영순 목사가 간증을 전한다.

주최 측은 "얼마 전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 땅 안과 밖에서는 끊임없이 북한 동포들을 위한 선교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고향선교회는 탈북자 선교에 힘써온 윤요한 목사를 통해 2002년부터 설립되어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동포들과 탈북자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2024 고향선교대회는 특별히 미국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산 정권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사역자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의 생생한 간증과 북한선교를 위해 애써온 여러 목회자들의 말씀 그리고



2024 고향선교대회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9/10(화)-9/13(금), 7:30pm에 개최된다. 사진은 2023년 10월 23-28일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고향선교대회. © 고향선교회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선교를 알리고 더 지속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40명의 탈북자들에게 자유 미국을 소개하며 잘못된 미국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복음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선교주체자들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일시: 9/10(화)-9/13(금), 7:30pm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1801S Grand Ave, Los Angeles CA90015
강사: 이창교 목사(상남교회),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이광훈 목사(창원중앙교회)
간증: 한에스터 전도사, 신한 전도사, 이주은 목사, 주영순 목사

김민선 기자



미드웨스턴 대학 한국부가 공개강의를 9월 9일(월) 오후 7시 토렌스 조은교회에서 개최한다.

미드웨스턴 LA 공개 강좌

미드웨스턴 대학 한국부는, 성경해석학 교수이자 제2 성전기(제2성전기는 기원전 516/5년경 제2성전 건설부터 서기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 문헌학자인 이상환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일차 독자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9월 9일(월) 오후 7시에 토렌스 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실시한다.

지난 6월에 달라스에서 진행된 공개강좌는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LA에서도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공개강좌 신청 링크: <https://forms.office.com/r/txV4LPMxy9>

성경은 여러 기자가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문화적, 문학적 장르와 기법을 사용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때문에 성경 본문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해석의 원리가 적용될 때 본문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환 교수는 일차 독자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 성경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차 독자의 눈으로 살펴본 예수님은 결국 신들의 왕이다"라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물을 발표하는 등 학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Re: 성경을 읽다> <신들과 함께> 등을 발표해 주목 받고 있다.

참석자 중 1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이상환 교수 등의 미드웨스턴 교수의 저서뿐 아니라 미드웨스턴 기념품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남침례

싱글맘 자녀 장학금 후원 음악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주최 9월 14일(토) 4시, 감사한인교회

싱글맘 자녀 장학금 후원 음악회가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World Christian Mothers Prayer,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 회장 이선자 목사) 주최로 9월 14일(토) 오후 4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테너 오위영, 최원현, 소프라노 김숙영, 최은원, 피아노 김주영씨가 출연하며, CTS A. Women's Choir(단장 손영금, 지휘: 김명

옥), 아리랑 합창단(단장 김경자, 지휘: 김정민), 아브라함 합창단(단장 민병철, 지휘: 최은원)이 찬조출연한다.

대표 회장 이선자 목사는 "싱글맘 자녀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CBB Bank, 순복음제자교회, 감사한인교회, 미라클포인트 교회, 파이오니아선교교회가 후원하며,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장로연합회, OC여성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공동주관한다. 문의: 714-220-7660 조셉 리 기자



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재학생만 7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최고의 질적 수준의 강의로 정평이 나 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를 통하거나 김동규 팀장 (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무궁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합창단 중의 하나인 '무궁화 여성 합창단'(단장 강성희)의 제23회 정기연주회가 9월 14일(토) 오후 5시 30분에 세리토스 선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에 오렌지미션콰이어(단장 박재환, 지휘 강민석)가 특별 찬조출연한다. 문의: (562)402-2919 세리토스선교회 세리토스선교회 주소: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김민선 기자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2024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

10/4 오전 8시~오후 7:30
모금 목표액 40만 달러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4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이 오는 10월 4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된다.

'GBC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은, 상업광고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GBC의 방송사역을 위해 약 11시간 특별생방송과 함께 공개 모금을 하는 날이다. 이번 공개헌금의 목표액은 총 40만불이며, 공개헌금의 날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방송 송출타워 모기지 상환과 송출타워 노후장비 교체, 종합 미디어로서의 도약을 위한 시설 및 인적 투자 강화, 방송국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2024 GBC 공개헌금의 날의 주제는 '당신이 그 한 사람'으로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미주복음방송이 '선한 통로'가 되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또한 미주복음방송에서는 2024 GBC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앞두고, 사전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8월에는, 선한 일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주별 이웃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라디오에서 소개하고 두 사람 각각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한사람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9월 현재는 '선한가게' 할인쿠폰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다. '선한가게'는, 미주복음방송을 후원하는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4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이 오는 10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업체들이 올 연말까지 사용할 가능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이다. 할인쿠폰은 미주복음방송에서 9월 초에 발행되는 '공개헌금의 날 특집호 뉴스레터'에 실리게 되고, 각 업체를 방문시 해당업체의 할인쿠폰을 오려서 제출하면 된다.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이영선 목

사는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결국 정답은 하나인 것 같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주복음방송은 이민사회와 교계의 구심점이 되어 이 시대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개헌금의 날을 통해 그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할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기도한다"며 이번 공개헌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2024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은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이날은 특별히 GBC 본사와 지사를 포함 총 12곳에 부스를 열어, 부스를 직접 방문해 후원하는 이들에게 특별 제작한 보냉 도시락 가방과 2025년도 캘린더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모금 부스는 GBC Anaheim 본사, GBC LA Studio 지사,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살롬교회, LA 시온마켓, Irvine 시온마켓, Buena Park H-Mart, Buena Park 한남체인, Fullerton 아리랑마켓, La Palma 한남체인, Garden Grove 아리랑마켓, Diamond Bar 한남체인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손문미 교수, "가시밭 길을 걷는 용기,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하나님"

→ 1면 기사 <사모 불레스..>에 이어

"많은 목회자를 상담한 Adigun 박사는 크리스천 가정의 매일 싸우고 50%가 이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현재 이혼율은 50%, 재혼을 하면 이혼율 57%. 그런데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사모의 3명 중 2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 영적 소속감, 심리적으로 상실되고 고립되어 간다. 우울증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성도 및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외로움이다. 60명중의 12명은 병원에 가고 싶고 10명은 자살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7명은 병원에 가봤다고 답했다. 사모들은 결핍, 공허감, 영적 갈급함을 겪지만 고충을 나눌 곳이 없다. 아무도 사모의 마음을 몰라준다."

그는 "많은 사모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 이분은 우울증에 걸려 오셨다. 미국에 오면서 남편 공부를 뒷바라지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의 위기를 겪던 중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게 하셨다. '너의 사명은 한 사람이다. 네 남편 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

었다"며,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말고, 남편의 성공에 가치를 두지 말라.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강에 이어 OC장로협의회 합창단(지휘: 김도영 장로)이 '순례자의 길', '소나무'를 불렀고, 2부 마지막 순서로 양희원 교수가 선물 증정과 친교 및 게임 시간을 이끌었다.

심상은 목사(OC교협회장)가 진행한 특별상 수상 시간에는 지난 25년간 한국을 방문치 못한 사모에게 1천 달러 상당의 한국 여행 바우처를, 자녀 6명을 키우고 있는 사모 2명, 가장 오랫동안 사모로 지내온 참석자 및 제일 젊은 사모에게도 특별 선물을 전달했다.

제3부 '사명의 재발견' 시간에는 심상은 목사가 결단과 합심기도 이끌고 민경엽 목사(OC교협 이사장)가 마침기도했다.

이날 사모에게 전달된 선물을 위해 장로협, 교협후원이사회, 각기관과 기업, 교회들, 개인들이 후원했다.

오렌지한인교회, 프뉴마 워십 찬양집회

플러튼에 위치한 오렌지 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에서 오는 9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찬양부흥회가 열린다.

프뉴마 워십을 통해 이민교회를 섬겨온 정유성 목사가 인도하는 이번 부흥회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 오니"라는 주제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오는 9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열린다.

27일(금) 저녁 7시 30분, 28일(토) 저녁 6시 30분은, 찬양집회로, 토요일 새벽과 주일 1,2,3부는 예배로 진행되며 금, 토요일 저녁은 자녀들을 위한 집회도 제공된다.

정유성 목사는 2002년부터 남가주사랑의교회와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사역했으며, 2009년 프뉴



플러튼에 위치한 오렌지 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에서 오는 9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찬양부흥회가 열린다.

마워십을 창립해 이끌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덴한인복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이후 2024년 6월부터 오렌지한인교회 제 9대 담임목사로 사역을 감당해 왔다. 주디 한 기자

일정: 9/27(금) 오전 7:30, 9/28(토) 오전 6시, 오후 6:30, 9/29(주일) 오전 9:30, 11시
오렌지 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문의: 714-871-8320

→ 1면 기사 <미성대 초대 총장...>에 이어서

서울신학대학원 교수, 대한신학강사, 월드미션대 대학원장, 미주성결대 초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 미주성결교단 총회장,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지내며 남가주 한인교회 및 미주 성결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썼다.

은퇴를 앞두고, 이정근 목사는

'함생주의(combiosism)'를 이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함생주의'는 '모두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끝까지 사는 것, 온전히 사는 것, 그리고 남을 살리는 것'을 포함하며, 그는 이것을 삼위일체 신론, 구원론, 교회론을 통해 제시했다. 그는 '조각글'을 모아 조각글집

15권을 출간하는 등 저작활동을 지속하며, 30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찬송가 13곡 등을 작사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목회자의 최고의 표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등이 있다.

장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대합니다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 · 권사 임직예배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온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워지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로

이규장

안수집사

강태봉, 김혜진

권 사

강종례, 고복순, 김안자, 김주은, 김치욱, 김해숙, 노미옥, 박소영, 윤경애, 이명희, 최임선, 최지영, 황정희

• 일사: 2024. 9. 15 (주일) 오후 4시 • 장소: LA 동부장로교회 대예배실
*화환 / 꽃다발을 사절합니다.

LA동부장로교회
Easter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김 정오

(213) 383-3261 | easternchurch@gmail.com | www.epcla.org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Norton 코너)

“자녀의 성적체성 문제, 협회에 도움 요청”

태평양 법률 협회 주성철 목사 인터뷰

기독교일보의 유튜브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 주성철 목사가 출연했다.

주성철 목사는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주로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26년째 돕고 있고, 그동안 4000여 케이스를 승소해 왔다고 했다. 그는 “나는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5년 전에 한인 사회에 있는 한 스파에서 건강장 육체를 가진 남성이 물리적으로 옷을 벗고 여탕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다. 올해 1월에서 LA 지역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고, 계속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희 협회에 연락을 하면 스파에 들어온 사람을 막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성전환자 정치 목적 아니야, 여성 보호가 목적

이어 “성전환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몸을 완전히 수술한 사람이다. 요즘은 너무 첨단 과학으로 수술이 발달돼서 몸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성전환한 자들이다”

서 “이 사람들은 오늘은 여자가 되고, 다음날은 남자가 되곤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돕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성전환 홍보류의) 광고들이 노골적으로 나온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그렇고, 복싱 문제도 있었다.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와 시합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공평하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요즘에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저서: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

이러한 여러가지 케이스들을 종합한 책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을 낸 주 목사는 책과 관련해서 “사실 책 제목 자체도 맞지 않는 것이, 미국에서 아직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일이 없다.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보험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위치를 허락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공립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권리, 그리고 교회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 카테고리를 일곱가지로 나눠서 다뤘다. 또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경험한 실질적인 경험담을 포함했다”면서 “이 책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성철 목사. ©기독교일보

AB1955(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부모의 권리 침해

이어 “종교자유와 부모의 권리,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협회에 연락을 하면 저희 담당 변호사가 24시간 안에 응답을 줄 것”이라고 했다.

AB1955 통과, '부모는 간섭하지 말라' 함의

그는 “최근에 AB1955(학생의 새로운 성적체성을 학부모에게 숨기도록 강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가 통과됐다. 이 말은 학교에

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다. 나의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협회에 연락을 하면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자의 삶, 성전환 수술의 현실과 미래, 교회와 신앙 등의 책의 카테고리를 보고 답임 목사는 물론 부모들이 책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주 목사는 “3-4가정을 모아주면 제가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45분 강의, 15분 질의응답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ZOOM으로도 강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일찍 은퇴하는 목회자나 교수, 일반 대학 교수 등 이런 분들을 모아서 4년 일반대학 과정하고 3년의 마스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것을 5년에 끝낼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온라인 티칭으로 되어있는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터까지 끝내면 그 나라 정부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아프리카에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프리카 현지 지도자들이 부족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을 리더로 기르고 싶다”고 했다.

문의: 213-284-4202, 714-640-7471(주성철 목사), rju@pji.org 토마스 맹 기자

추석잔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9월 12일(목) 오전 10:30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오는 9월 12일(목) 10:30am 재외동포청, 왕글로벌, 서울메디칼 그룹, Best Roll-Up Door, LA불교인상록회, Anthem Blue Cross 후원으로 아래와 같이 <2024 추석 큰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추석 잔치는 설날, Mother's Day 축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로 강강술래, 씨름대회, 달맞이, 소싸움 등 우리의 민속놀이로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날이다.

추석을 맞아 한인타운 어르신들과 VIP 및 주요 단체장들이 한마음

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시니어센터는 공연과 함께 300명 참가자 모두에게 송편과 한식 점심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고, 고급 쌀 한 포씩을 선물로 드린다.

시니어센터 장구반(지도 최혜련 교수) <희망의 북소리> 연주로 시작, 한국무용(지도 고수희교수), 하모니카반(반장 박중규) 학생들이 공연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오는 9월 12일(목) 오전 10:30에 2024 추석 큰 잔치를 개최한다.. ©시니어 센터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Lic#854389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25 YEARS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플러튼 지역

#수업개배우는건가

조이스리 가정주치의 건강세미나

요실금 & 오줌소태의 모든 것



세미나소개

센터메디컬그룹의 1호 직영점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 지점**에서 여성 주치의 조이스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설명해주는 **오줌소태/요실금**에 관한 모든 것!

세미나대상

말 못할 부인과 질환들을 고민하고있는 모든 **여성 시니어**

세미나정보

9월 18일 수요일 10:00am
나들목 비전 교회
(223 E Imperial Hwy #145 Fullerton, CA 92835)

참여 및 문의

전화로 신청 및 문의 주세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714) 519 - 3024

참가비

무료
(다과와 푸짐한 구디백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함께하는 기관 KACC한인연합센터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시니어라면
오케이!

만 64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으시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2024년 센터메디컬그룹배 시니어 탁구대회

2024년 9월 12일 (목) 9am 플러튼 탁구 아카데미
241 E Imperial Hwy #350, Fullerton, CA 92835

신청방법

전화접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888-847-3098

현장접수

플러튼 탁구아카데미
방문접수 가능

경품

경품이 와르르~

참가상

참가만해도 상품 혜택!
상품 가득한 구디백

1등

생생한 화질을 볼 수 있는
삼성 65" TV

2등

빠른 물살을 타게
마사지건

3등

먹방 채도 높이는
프리미엄 홍삼

리 스트로벨 “Z세대 전도 첫 관문은 변증”

복음주의 기독교 변증가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이 변증은 영적인 Z세대와 소통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청년들이 갖는 질문과 의심을 수용할 것을 권장했다.

과거 무신론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콜로라도 기독교대학교의 리 스트로벨 전도 및 응용 변증학 센터(Lee Strobel Center for Evangelism and Applied Apologetics)의 창립 이사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미국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 꺾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교인 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연구는 2070년까지 미국인의 절반 이하가 기독교인일 것으로 예상한다 - 젊은 세대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반복된 조사에 따르면, 영성에 대한 관심은 Z세대 사이에서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스프링타이드 연구소(Springtide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성인 3명 중 1명이 신적 존재를 믿는다고 응답했고, 이는 2년 전의 4명 중 1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영국의 데오스 싱크탱크(Theos Think Tank)의 연구에 따르면 Z세대의 57%가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이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초마다 200명이 “하나님은 실재하는가?”라고 검색 엔진에 입력하고 있는데 이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재된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본능적인 영적 관심이 하나님 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류의 갈망은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실재한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C. S. 루이스(C. S. Lewis)는 “생명체가 없으면 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철학자 더글러스 그루타이스(Douglas Groothuis)는 “우리 모두는 현재 자연 세계가 충족시킬 수 없는 무언가, 즉 초월적인 영광을 향한 깊은 갈망이나 감각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자연스럽게



리 스트로벨(Lee Strobel) 목사. ©새들백교회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언론학과 법학을 전공한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영원한 결과가 없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다.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나는 특히 기독교의 기초라고 인식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함으로써 그녀를 이 사이비 종교에서 구출하고 싶었다. 나는 2년 동안 언론학과 법학 교육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신앙을 조사했다.

1981년 11월 8일, 나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무신론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로 수 년 동안 내 발견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으며, 그 중 다수는 9월에 델러스 포트워스에서 열리는 ‘호프투게더콘퍼런스’(Hope Together Conference)에서 호프포터하트(Hope for the Heart, 성경 리소스 사역단체)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존재를 배제하는 과학적 유물론적 철학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Z세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또한 기독교가 실재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영적인 논거를 사용하는 것도 배제된다. 그러나 우주론, 물리학, 유전 코드의 함의를 살펴보면, 신성한 창조주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 중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우주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

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주 뒤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우주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초월적이어야 한다. 물리적 세계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거나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 창조 사건의 광대함을 감안할 때 강력해야 한다. 창조 사건의 정밀성을 고려할 때 똑똑해야 한다. 창조하기로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이어야 한다. 우주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창조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변성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보살피거나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의 과학적 원리에 따르면,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다. 만약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설명이 필요한단 말인가.

물론,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중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언급하겠다. 만약 하나님이 실재한다면, 왜 고통의 문제가 있으며 왜 그분은 숨으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 저의 최근 저서 『하나님은 실재하시는가? 삶의 궁극적인 질문 탐구』(Is God Real? Exploring the Ultimate Question of Life)에서 나는 이 격변하고 골치 아픈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점점 더 많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단순히 높은 존재의 실재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존재에 대한 강력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 탐정 J. 워너 월러스(J. Warner Wallace)는 무신론자였으나 신앙을 조사한 후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는 21세기의 복음 전도는 ‘A-P-O-L-O-G-E-T-I-C-S’라는 철자로 설명된다고 했다. 그가 효과를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터넷의 급부상과 문화의 세속화로 인해, 수많은 Z세대와 알파세대(12세 이하)의 사람들은 내가 ‘영적 장애물’(spiritual sticking points)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의심이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변증학(apologetics)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이 결국 신앙을 떠날까 걱정하는 기독교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이 변증학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자녀 앞에서 일관되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라. 가치관은 가르침보다 더 많이 전달되며, 청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활발하고 솔직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청년들에게 질문과 의심을 갖는 것이 권장되는 것을 알려주라. 그들이 이러한 의심을 감추면 내면에서 서서히 부식될 수 있다. 질문과 걱정을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러한 의심은 영향력을 잃게 된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직전으로 정했다. 우리는 어떤 반대나 의심을 표현하는 것에도 낙인을 찍지 않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아들은 현재 신학교의 신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

나는 젊은 세대의 신앙에 대해 낙관적이다. 사회가 더 세속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더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말 그랬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청년 전도 사역을 이끄는 제 친구 그렉 스티어(Greg Stier)는 이렇게 말했다. “나쁜 소식은 Z세대가 슬픔, 외로움, 불안에눌려져 있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이 절망감 때문에 영적 해답을 찾는데 그들은 더 열려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 복

음을 전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제 친구 셰인 프루이트(Shane Pruitt)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대학생과 청소년을 이전 18년 동안의 사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청소년을 사랑하시며, 우리 역시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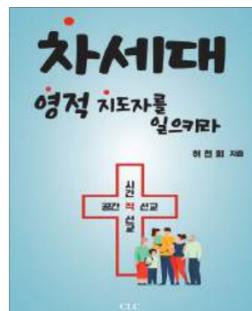
이대웅 기자

9월, 작가들의 말말말

어천외 -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라

차영지 신학과 운동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신학적으로 답을 찾아 목회 현장에서, 즉 교회에서 그 내용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답을 찾아내려는 몸부림이다. 차영지 운동이 찾아낸 답 중 하나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명백한 선교, 즉 시간적 선교라는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선교는 반드시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회 내에서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놀랍게도 공간적 선교와 시간적 선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승연 기자



故 박경숙전도사

천국 환송 예배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00

가주 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 562.622.9393

하관 예배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2:30

Oakdale Memorial Park Garden of Hibiscus
1401 S. Grand Ave, Glendora, CA, 91740
T. 626.691.2000

장례 일정 연락 장녀 김소영 213. 503. 1021 장남 박성진 281. 254. 5707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 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 및 고령자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터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

2024 뉴욕할렐루야복음화대회 “희년으로 자유하라”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프라미스코회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50주년 희년 뉴욕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김홍양 목사(제주 제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프라미스코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홍양 목사는 한국에서 서울잡실교회를 24여년 동안 담임하면서 일산효성교회, 연곡효성교회, 조선희성교회, 오창효성교회, 강동효성교회 등 교회를 연속해서 분립 개척해 순회 목회를 하는 등 도전정신이 강한 목회자로 저서로는 『맥체인성경 2면 4책』이 있다. 현재도 꾸준히 초교과 부흥사 사역과 성경통독 및 작은교회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뉴욕교협 회장 박태규 목사는 첫날 대회를 통해 “희년의 큰 축복과 은혜의 해가 바로 뉴욕교협의 50주년이 될 줄 믿는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지만 주님은 희년을 모든 성도들과 가정 사업장에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 계약서이니 그것을 손에 붙드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사 김홍양 목사는 “부족한 종을 할렐루야대회 강사로 초청해 주셨다. 역대 할렐루야대회 강사진을 봤는데 모두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다. 작은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다 알 수 없으나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행하실 줄 믿는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첫날 ‘희년, 하나님의 꿈을 꾸자’(막 8:1-10)는 제목의 설교에서 야곱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제주제일교회 김홍양 목사. ©기독교일보

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은 예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엄청난 꿈을 주셨을까.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십의 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등 매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누웠던 자리가 벉엘이 된다.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5원칙’(막 8:1-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둘째날 김홍양 목사의 말씀은 더 깊어졌다. 그는 제주제일교회 목회를 맡기 전 오산리 기도원을 20여 년 만에 방문했을 때 과거 수천명이 항상 모이던 것이 현재는 100명 채 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배가 불러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3전5백명까

지 모였던 뉴욕 할렐루야대회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해석했다.

김 목사는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고 불확실성 미래는 대기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원칙으로 함께(with), 기다림(wait), 바라봄(watch), 일(work), 성령의 바람(wind)을 제시했다.

그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으로 한 말씀을 통해 “2천 년 전 당시 4천명의 군중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고, 바라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전과 다르게 일할 수 있고, 간증하며 일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날은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수 3:11-17)이라는 제목으로 교회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담과 간증을 전했다. 한 때 코미디언을 장래희망으로 꿈꿨을 만큼 입담이 돋보이는 김 목사의 생생한 에피소드들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한바탕 웃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김 목사는 둘째날부터는 강단에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 직접 안수기도를 했다. 마지막날은 참석한 목회자들도 강단에 다 올라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평신도들에게 함께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날은 박태규 회장의 뉴욕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뉴욕선언문 전문.

1. 뉴욕교회협의회는 정확무오한 성경 66권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말씀 중심으로 세워나간다.
2. 이단을 배격하고 동성애, 이슬람, 극단적 신비주의 등 성경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배격한다.
3. 세계 복음화 운동을 계속 전개하며 초교과 복음주의 운동 연합을 주도해간다.
4. 디아스포라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협의회가 차세대(1.5세, 2세)로 펼쳐갈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한다.
5. 이민 동포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지역사회 역량을 위한 연대를 지속해간다.
6. 미국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이민자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민족의 뿌리임을 명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의 4대 기둥을 지지하며 후대에도 역사적 사실을 교육한다.
7. 뉴욕교협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인 '새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복음주의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매진한다. 김대원 기자

텍사스 A&M 대학 집회, 구원의 회개 기도, 침례식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경험”
참석자들이 간증에 참여

지난 목요일, 텍사스 A&M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 캠퍼스에서 열린 대규모 복음 전파 집회에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집회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펼쳐졌다. 행사는 뉴 라이프 교회의 청년 사역팀인 '뉴 라이프 영 어덜츠'가 주최했으며, 이 팀은 캠퍼스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학생 단체다.

뉴 라이프 교회의 담임목사인 마이클 펠라우어와 보니 펠라우어 사모는 페이스북에 이번 집회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게시했다. 이번 집회에서 설교를 맡은 뉴 라이프 영 어덜

츠의 타릭 휘트모어 목사는 이사야서 6장을 본문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이후 죄의 자각, 정화, 그리고 소명의 과정”을 강조하며 깊은 영적 성장을 촉구했다.

집회 중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한 구원,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 순서가 특징적이었으며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었다.

집회 중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한 구원,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 순서가 특징적이었으며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었다.

집회 중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한 구원,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 순서가 특징적이었으며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고,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 저기 목격됐다고 현지 관계자는 전했다. 집회 마지막 순서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소명을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휘트모어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모습이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뉴 라이프 교회는 같은 캠퍼스에서 비슷한 복음 집회를 개최했으며, 당시에는 약 1,000명이 참석했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다. 휘트모어 목사는 올해 집회에 대해 “작년과 가장 큰 차이점은 성

령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텍사스 A&M 대학에서의 집회에 앞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집회가 열렸으며, 이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은 이번 경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놀라운 경험”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말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영적 변화를 목격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다. 이창한 기자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7년간 알카에다 인질로 잡힌 선교사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다”



납치되기 전의 켄과 조셀린 엘리엇. ©Facebook/Rebekah Ziesmer Strand

알 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집단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한 기독교 선교사가 자신이 겪은 시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그곳에서 더위와 추위, 전갈, 괴혈병 등 극심한 환경에 갇혀 지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전했다. 인질로 잡혔을 당시 82세였던 켄 엘리엇 박사는 풀려나기 전까지 7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80대 노인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질문에 그는 간단한 답을 전했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의료 사명을 수행했으며, 병원 문을 통과하는 모든 환자가 종교나 피부색, 지능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도록 헌신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환자를 구성하는 무슬림 다수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서양의 외부인이 그들의 생각을 강요하려 하기 보다는 공동체에 속한다고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들이 납치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은 격노했다.

조셀린은 몇 주 후 풀려났고, 켄은 루마니아인인 유일한 인질인 줄리안 게르거트와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켄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9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 ‘누가 이걸 9개월 동안 참을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국 7년 4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했다. 포로로 잡혀온 자들과 잔혹한 사막 환경의 위협과 더불어, 켄의 건강은 나쁜 식단으로 인해 악화됐다.

비타민 C 공급원이 없어 다리가 부어 오르기 시작했고,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다. 엘리엇은 영국의 케츠워 컨벤션에서 “제 의료 경력 동안 (괴혈병을) 단 한 번만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라고 말했다.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납치범들은 보충제가 없다고 말했고, 그들의 리더가 켄의 상태를 알게 된 후에야 그는 마침내 건강을 회복할 만큼 충분한 약을 받을 수 있었다. 납치범들은 포로로 있는 동안 그를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켄은 자신의 신앙에 확고한 태도를 보였고 사막에서 길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ABC에 “주님께서 저에게 선사하셨다. 이슬람교로 개종해 그분께 불명예를 둘릴 수 없다”라며 “심지어 개종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인터뷰어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고 물었을 때, 켄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분은 항상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풀려난 유일한 이유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믿는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지난 4년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1만7천여 명 살해돼”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나이지리아에서 폭력으로 인해 1만7천여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리카 종교자유 관측소(ORFA)에 따르면 사망자의 절반 이상(55%)이 급진화된 무슬림 풀라니 목동에 의해 사망했다고 한다.



기도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오픈도어

ORFA는 “이슬람 극단 주의자들은 나이지리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상대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총 1만건에 가까운 공격과 5만6천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했는데, 그 중 3만건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기독교인 희생자 수(1만6천769명)는 무슬림 사망자 수(6천235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ORFA는 “공격이 발생한 주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비례적 손실은 예외적으로 높다. 주 인구 측면에서 볼 때, 무슬림보다 기독교인이 6.5배 더 많이 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폭력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 북중부 지역과 남부 카두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격 현장에서는 눈에 띄게 치안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ORFA 선임 분석가인 프란스 비에르하우트는 “수백만 명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수년 동안, 테러리스트들이 취약한 지역사회를 공격하면서 도움 요청이 무시당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데이터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살인만이 문제가 아니다. 4년의 연구 기간 동안 2만1천건의 납치 사건도 기록되었으며, 기독교인이 납치될 가능성은 무슬림보다 1.4배 더 높다.

ORFA 파트너이자 분석가인 기드온 파라말람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풀라니족 민병대(FEM)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무슬림 역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납치범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 젊은 여성들이 납치되고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가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폭력의 규모로 인해 무려 330만 명의 나이지리아인들이 집을 떠나 임시 캠프에서 생활해야 했다.

ORFA는 국제 사회에 “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이지리아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2세)을 섬기며, 선교를 영혼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인터넷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새우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삼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M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보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4: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주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I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서사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민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사명을 행하시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찬 교회 성령받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전교부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트랜스젠더 대명사 사용 거부한 교사 “권고사직 부당”



미국 오하이오주 잭슨 타운십 잭슨 메모리얼 중학교. ©구글

미국 연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학생의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기독교인 여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학군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오하이오 북부 지방법원 파멜라 바커 판사는 지난 8월 초, 잭슨 타운십 잭슨 지역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전 잭슨 중학교 영어교사 비비안 게러티의 약식 판결 요청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신을 사도오순절교회(Apostolic Pentecostal church) 신자라고 밝힌 게러티는 남녀의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믿으며,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바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게러티에게 강요된 발언이 그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군 이름과 대명사 사용 방침이 중립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카터는 게러티에게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만 부르라고 제안했지만, 게러티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게러티는 마이어스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불복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다만 이익 균형 테스트(Picker-ing balancing test)와 엄격한 심사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배심원단이 관련 이익에 대한 사실을 판단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게러티는 트랜스젠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하다고 믿었으며, 그 효정을 쓰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카터는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게러티는 사직했지만, 이후 교사 노조에 연락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문의했다.

게러티는 사임을 강요받은 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잭슨 지역 학군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여러 학군 및 학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기 초 이 교사는 학생들의 선호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교장인 케시 카터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 위원장은 게러티에게 만약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기로 동의하면 사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게러티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 절차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게러티와 학교 및 학군 지도자 간에 회의를 열렸는데, 세 차례 회의가 모두 같은 날에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교사와 교장이 처음 논의한 사항도 다뤄졌다.

바커 판사는 게러티가 적절한 불만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학군 주장을 기각했다. 또 “게러티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녀의 보호된 행동이 사직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 사실의 쟁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회의에서 학군 교육과정, 교육 및 평가 담당자인 모니카 마이어스는 게러티에게 그녀의 종교적 신념과 그 신념이 왜 학생들의 선호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바커 판사는 학군이 적절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러티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학군 관계자들이 공식 직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김유진 기자

트럼프 “죽음은 불가피... 미국, 종교 부흥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 종교적 부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선한다면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종교를 많이 잃어버렸다. 종교가 있으면 정말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교는) 인도자였다. 종교가 없으면 진정한 보호막이 없다. 난 우리가 종교로 귀의하는 것을 보고 싶다. 미국에 더 많은 종교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계 미국인 팻캐스터 렉스 프리드먼과의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부터 케네디 암살 사건, UFO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죽음의 의미와 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종교의 역할, 그리고 내세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트럼프는 자신을 기독교인이자 기독교인에게 우호적인 후보라고 내세웠다. 지난 2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2024년 국제 기독교 미디어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앙인들을 상대로 사법제도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다.

프리드먼은 “인생의 비극 중 하나는 끝이 난다는 것”이라며 “당신은 얼마나 자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가? 죽음이 두려운가?”라고 물었다.

그는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모두를 둘러싼 사슬이 조여지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급진 좌파가 우리 모두를 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충성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충성은 미국과,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월 13일(이하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던 트럼프는 “80대 중반의 매우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종종 시간이 흘러간다고 상기시켜 준다”고 회상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액션 기독교 집회에 참석해 교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트럼프는 “그는 ‘매일 매순간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말했다”며 “죽음의 불가피성에서 평안을 얻는 데 종교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미국이 옛날처럼 더욱 종교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美 보건부, 교직원에 “성중립적 용어 사용하라” 권고



©Unsplash

미 버몬트주 보건부는 개학 시즌에 맞춰 학교 직원들에게 학생들을 ‘아들’이나 ‘딸’ 대신 성중립적 용어로 부르도록 권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보건부는 8월 25일(이하 현지시각)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족이 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군가의 자녀를 지칭할 때 ‘아들’이나 ‘딸’ 대신 ‘아이’나 ‘아이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 용어는 성별중립적이며, 누군가의 합법적인 아들 또는 딸이 아닐 수 있는 아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이어 부모들에게 “모든 가족이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니므로, ‘가정 구성원’(household member) 대신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이라고 말하라. 이혼하거나 수감된 부모, 이복형제 자매 등을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확대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중중 조부모, 숙모, 삼촌, 사촌은 핵심 가족 단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버몬트 보건부는 해당 기사물에 게재한

댓글에서 “이 게시물은 누군가의 가족 상황에 대해 모를 때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에는 가족을 위한 포용적 언어를 구성하는 예시가 담긴 사진도 첨부됐다. 이어 “이것은 특히 교실,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스포츠팀과 같은 환경에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가족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이들이 보이고,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버몬트주는 주정부와 지방 차원에서 성소수자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달 버몬트 보건부가 발행한 건강평등 뉴스레터 최신호에는 교사들이 ‘교실 내의 평등’을 발전시킬 방법에 대한 조언이 포함돼 있다. 이 뉴스레터는 “모든 학생의 요구, 배경 및 능력을 지지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백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비장애인 및 전형적인 학생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본능이나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이것은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및 성소수자 학생과 신체적 및 신경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장벽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 오하이오주립대 부흥집회에 수천 명 참석, 60여 명 세례 받아



2024년 8월 25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수천명이 참석하고 있다. ©엑스닷컴

지난 주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OSU) 캠퍼스에서 열린 부흥 행사에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몇몇 미식축구 선수들이 간증을 나누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행사는 지난달 28일 학내 컬마켓 앞에서 열렸으며, 여러 교내 기독교 학생 단체들이 주최하고, 대학 미식축구팀 벅아이즈(Buckeyes)의 여러 선수가 예배를 인도했다. OSU 학생 신문인 랜턴(The Lantern)은 그날 저녁 약 6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설자로는 미식축구팀 리시버 에메카 에그부카, 러닝백 트레비온 헨더슨, 디펜시브 엔드 J.T. 투이몰로아우, 전 와이드 리시버 캄린 배브가 나섰다.

일부 보도에서는 참석자 수를 800에서 1000명으로 추산했지만, 행사에 참석한 OSU 교직원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참석자 수가 2000명에 더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 교직원은 부흥 집회에 대해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놀라운 행사였고, 선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진실하게 나누었다”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그분께 초점을 맞추었다. 매우 진솔하고 감동적인 행사였다”고 전했다. 선수들이 간증을 마친 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었고, 이는 미식축구 선수

들이 사용하는 얼음 욕조에서 세례를 받는 제단 초청(altar call)으로 이어졌다.

교직원은 CP에 “즉흥적으로 세례가 시작되었고, 미식축구 선수들이 참석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한 사명씩 나아왔고, 그들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행사 이후 기독교 학생 단체들에 전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에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다른 공간으로 안내해 제자도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기독교 학생 단체들이 함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친구들을 데려왔다. 세례를 받는 동안 참석자들은 그들의 친구를 자신이 속한 그룹으로 이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사 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브는 수천 명이 집회에 모인 이유가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브는 “인간의 본성은 희망을 갈망한다. 우리는 희망, 사랑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한다”며 “우리가 찾고 추구하는 것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가디언)오전 8:30 토요일(가디언)오전 8:30(토)오전 6: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한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595-3110 hnsia@hnsi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가미교회)오전 11:00 영아부예배(말씀채움)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말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1부 8:00 주일 2부 9:30 주일 3부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오전 6: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호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방떡, 순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같은,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현혜명 작가 개인전 “축복받은 여행”

Hei Myung Hyun
Blessed Journey
September 14 - October 12, 2024

Opening Reception: September 14 (Sat), 2024, 4-6 pm



SHATTO GALLERY
3130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현혜명 작가의 개인전이 9월 14일 (토) Shatto Gallery(3130 Wilshire Bl. #104 L.A. CA 90010)에서 열린다.

9월 14일(토)에 오프닝 리셉션이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전시는 10월 12일 까지 계속된다. (일, 월화요일은 휴무)

현혜명 화백은 194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미대 졸업 후 국전에서 특선을 두 번 수상했고, 1966년 미국으로 유학, 펜실베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를 졸업하고 하트포드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자연을 모티브로 작업하며 조용하고 섬세하게, 끊임없이 진화하는 작업을 선보여온 현혜명씨는 평생 추구해 온 회화의 두 기둥인 추상과 구상,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줄다리기 속에서 긴장감을 놓지 않는 작품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민선 기자

제4차 ‘Shalem 살렘’ 리더십 세미나

제4차 GIFT ‘Shalem 살렘’ 전인 적리더십세미나가 10월 5일(토)부터 7일(월)까지 부에나파크에서 개최된다.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전달훈 의학박사와 리더십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전달훈 박사는 GIFT상담치유연구원 공동 설립자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장로이면서, Orange County에서 30여년동안의 술을 베풀고 있다.

리더십 전 박사는 공인된 임상심리학 박사로서 GIFT전문상담소 원장이면서, GIFT상담치유연구원 공동 설립자이다. GIFT 전문 상담소를 통해서 정신건강 전문인으로 일을 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전인적리더십세미나. ©GIFT 상담치유연구원

“사역자들이 남을 돌보느라 가장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살렘 전인적리더십 세미나를 통하여 목사/사모들이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힐링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25인이 정원이다. 등록비는 500불이나 프로그램에 합격된 이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으로 제공된다. 문의는 giftshalem@gmail.com, 714-522-4438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베델교회 이혼, 별거 회복 세미나

베델교회는 가정 회복 사업 ‘Beyond the Blue’세미나를 9월 6일(금)부터 12월 6일(금)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3주에 걸쳐 개최한다.

이 교회는 상반기에는 배우자와 사별한 이들을 위해 13주간 세미나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이혼이나 별거로 마음의 상처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짐을 지게 된 이들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베델교회는, “두려움, 상실, 분노, 배신감, 집착, 복수 등은 스스로 돌발에 뿌려진 씨앗으로 자라는 것과

같다. 13주간의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일구는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일시: 9/6-12/6,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13주간) 6시부터 저녁 식사와 child care 제공
장소: Joy Chapel
등록 방법: 교회 홈페이지(bkc.org) 또는 주일 코트 야드

Beyond the Blue
Healing, Transformational Journey, Restoration

DIVORCE Care 이혼가정회복 세미나
*기 간: 2024년 9월 6일(금)-12월 6일(금), 13주간
오후 7-9시 (6시부터 저녁식사/차대 care 제공)
*장 소: 베델교회의예배(버전 센터 1층, 행정실 옆방)

등록비: \$40
문의: 강재형 집사 (949)533-4147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베델교회, 댄스 워크샵 및 오디션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Call 2 Christ’, 크리스천 청소년 댄스 워크샵 & 오디션을 9월 13일(금) 오후 4시~6시까지 임마누엘 채플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6학년~12학년까지이며 연습기간은 9월 13일~12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까지이며, 임마누엘 채플에서 진행한다. (11/1, 11/29 제외) 10월 19일과 26일에는 엑스트라 연습기간을 갖는다.

가을 학기 등록비는 \$280이다. 등록은 베델교회 홈페이지(https://bkc.org/)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강사는 다니엘 안(Daniel An)으로, 커뮤니티에서 4-5년 동안 무용 경력을 쌓은 댄서 겸 안무가이다. 그는 현재 오프스테이지(Off-stage)와 러츠 댄스 스튜디오(Ruts dance studio)의 정규 강

CALL 2 CHRIST
크리스천 청소년 합합 댄스 C2C 워크샵 & 오디션

등록하기

- Audition: 9/13, 4-6 PM, Immanuel Chapel
- Practice Schedule: 9/13 - 12/13, 4-6 PM, Friday, Immanuel Chapel (No Practice: 11/1 & 11/29)
- Extra Practice: 10/19, 10/26, TBD
- Tentative Performance Dates: Fall Festival 10/3, 12/15(TBD)
- 가을 학기 등록비: \$280 (Registration fee)

베델교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합합 댄스 워크샵 및 오디션. ©베델교회

사로 활동 중이며, 스노우글로브(Snowglobe), 레거시 댄스 스튜디오(Legacy Dance Studio), 엔조이 댄스 스튜디오(Enjoy Dance studio), 부기존(Boogiezone) 등 다른 지역 스튜디오에서도 가르

친 바 있다. 방탄소년단, 트레저 등 다양한 K팝 그룹과 작업했으며 판도라스 박스라는 팀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조셉 리 기자
문의: 장재형 팀장 714-599-4554

김한요 칼럼

더~베델교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10-15%의 교인들이 현장 예배를 이탈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 출석이 줄고, 현장 예배가 늘어나면서 교회 출석자들의 신앙 지표가 향상되었음이 주목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장

예배 참석률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금은 어른들의 현장예배 참여 숫자가 팬데믹 이전의 숫자로 근접했으며, 오히려 자녀들의 숫자는 그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싸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 가까운 교회로 이동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베델교회는 이전의 출석 인원을 넘어 현장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있으며, 더불어 여전히 30, 40세대가 많은 교회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크웨이브 이사회가 인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동서부, 심지어 한국에 계시는 대표 이사님들까지 방문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며 이슬람권의 선교를 위한 전략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기도제목은 젊은 청년들의 선교자

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담임목사가 청년들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삿 청년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청년들 예배에 들어가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직접적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선교적 보고가 우리 젊은 청년들인데, 그 뜨거움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는 현상을 같이 공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베델교회를 개척하며 파송합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송합니다. 예수를 섬겼던 강문구 목사님을 필두로 아직도 척박한 이민사회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단기선

교팀을 파송하듯, 선교사님들을 안수하여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듯, 오늘 우리는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파송합니다. 복음의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음핵폭탄을 쏘아 올리는 간절함으로 눈물과 함께 보냅니다. 늘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강목사님께서 시대적 부르심에 응하여, 다음 세대에 소망을 던지는 교회로 세워 가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대를 아우르며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규모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복음의 원색으로 시대를 가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이 더베델을 낳듯이, 더베델이 썬베델을 낳는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우리들의 파송이 하나님의 뜻이듯, 반드시 이베델의 생명 운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을 위해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밥상교회 무디 고 목사

50개 주 홈리스 선교 보고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홈리스 사역을 10년 이상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느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혼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반복되는 중독과 고통은 모든 이들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헌신 하는 형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형제들에게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50개 주 홈리스 선교를 위한 비전을 주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낙오되어 밑바닥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 하기 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차량을 후원 받고 많은 재정을 감당할 중보자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8 명의 홈리스 형제들을 데리고 30일 간의 50개 주 홈리스 선교를 감당

할 수 있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던 동기는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성 밖에 있던 문동병자 4명이 적진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 같은 역사를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전히 어리고 힘든 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었는데 우리의 힘을 의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출발했던 50개 주 홈리스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 하였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50개주를 돌며 미국의 고통과 주님의 아파하심을 마음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캔사스, 시카고, 필라델피아, 캔싱턴, 뉴욕, 볼티모어, 아틀란타, 달라스, 투싼, 휘닉스, 사방팔방에 고통받는 홈리스를 보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심지어는 백악관 앞에도 홈리스가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더욱 의지 하



©아버지밥상교회 제공

게 되었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 하기 원합니다.

캔싱턴에 홈리스 상황은 가장 비참하고 심각했습니다. 마약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씩어가는 팔 다리를 보면서 한량없이 흘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홈리스 형제들을 50개 주 홈리스 선교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 없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이 혼란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 가장 연약한 지체를 통해 복음을 증거 하게 하시는 하

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이제는 더욱 열심을 내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LA, 빅토빌, 바스토,세군데 센터를 통해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주 선교를 갔다온 우리 형제들은 이제 라스베가스 선교센터 개척과 샌프란시스코 센터 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주신 아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바스토 아버지 밥상교회(Father's Table Church) 기도실에서 무디 고 목사



©아버지밥상교회 제공

2024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THEOLOGICAL SEMINAR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SEVIS 인증.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SEVI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BHE, ATS 인증.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미드웨스턴 컬럼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 (2)



안지영 목사
미드웨스턴 부교수

나도 겉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부정적으로 폄하하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주일 예배 때 참석한 교인 수와 헌금 액수에 저절로 시선이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더군요. 시간이 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교회와 목회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면서 양적 성장에 관한 숨겨진 욕심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제 목회 현장의 막 바지에 와있는 이 순간에도 주보에 있는 헌금 액수와 설교단에 서서 눈에 들어오는 참석 인원수에 관한 나의 눈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어찌 나에게만 있겠습니까. 만은 이런 압박을 견뎌낸다는 게 쉽지 않기에, 현실에 타협하게 되면서 그 압박감

은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한 채, 나 스스로 지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은 이런 현실적 고뇌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주님이 세우시려 했던 교회의 원형을 추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에 부임하거나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경우에, 목회자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 사역 외에 일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모도 남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럴 경우, 목회자 부부가 목회와 생계를 감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원활한 목회 사역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신이 지쳐서 목회자도 지치고, 교회 식구들도 교회 공동체 삶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목회 초기에 가졌던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던 활력과 희망이 점점 얼어져서 목회 현장에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거나,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버리게 됩니다.

주변에 교회 개척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인 개척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할 개척 멤버가 필수인데도, 무작정 목회자 가정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목

회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회자와 함께 같은 비전과 가치관을 갖추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초기 개척 멤버들이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개척 당시에 가졌던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은 어느새 그냥 꿈으로만 남게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미드웨스턴 신학교 한국부에서 "성경적 목회와 교회 모델"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목회와 교회의 모습을 나눌 때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 중에, "초대 교회에 관한 원리를 배웠고, 또 그것에 대한 방안을 토의하고 연구하기도 했지만, 결론은 과연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허탈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고 말기에, 목회 현장에 있는 자들로서 목회에 관한 어떤 희망을 갖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도하고 있는 목회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에 희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적어도 시도를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나의 목회는 모범적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눔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도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해도 쉽게 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헌신자들이 모자라서 진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규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몸이 상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 빈도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진단한 의사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제가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주님께서 제게 요구하셨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목회'라는 첫 부르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길을 갈 거면, 이왕이면 제대로 가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혼자서 빙글이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함께 해준 가족들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들구요. 나를 신뢰해 주는 교회 식구들 때문에 마음이 파스해집니다. 여전히 저는 목회를 배우고 있고, 그 목회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민중기 칼럼

제주에서 만난 45년 전의 전우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동생 부부와 제주도에서 한 주일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마지막 이들은 성산 일출봉을 창밖으로 보면서 지냈습니다. 화산섬 제주도는 전체가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일 년이 지나도 다 못 볼 경이로운 자연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검은 해변, 돌담과 돌하루방, "오름"이라는 기생화산, 주상절리와 이국적인 나무, 폭포와 용천수, 수많은 용암 동굴과 생물 등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를 체험하는 중에 오래 전 추억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주가 고향인 친구, 나윤엽은 70년대 말

학군단 훈련반을 때 만났습니다. 홍익대 미대생인 그는 나름의 미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 초, 전남 광주에서 초등군사교육반을 이수하며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쁜 훈련 중 어떤 주말, 우리는 완도의 정동리 몽돌해변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영암 월출산을 지났습니다. 그 산의 불꽃 같은 윤곽을 바라보며, 나는 "인생이라 이름짓고 싶다" 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이 산과 같으면 대성공"이라 말했습니다.

해변의 여인숙에서 일찍 일어나, 우리는 자갈로 이루어진 그 몽돌해변으로 그림을 그리러 나갔습니다. 그 친구의 코치를 받으면서 함께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명암, 색조, 바다와 바위의 민물과 썰물을 보고,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무딘 붓으로 그려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내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연을 본 자신의 "인상(impression)"을 그리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자신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했더니, 그는 "전공자들 절망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가 특전사로 부임한 것을 알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군 생활, 대학원 공부, 유학목회의 45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미국 목회 중에 얻은 친구의 전화번호로 수십 년 만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은 목소리로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꼭 찾아 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제주도 일출봉 근처의 표선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함께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45년 만에 본 친구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길들지 않은 모습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특전사, 한미 연합사의 장교로 군 생활을 했고,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뒤 대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하여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내고 나서, 겸손하게 국가의 도움으로 잘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그가 경영하는 2만 평 농장으로 가서 그가 타 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의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농장에 몇 채의 집을 지었고, 몇몇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환경을 배려하는 농군이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3마리의 말을 기르고 하였습니다. 채소 농사를 지어 각지에 사는 지인에게 먹거리를 공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원초적인 농사 방법을 찾아 생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한 그의 아내는 자연과 원시림 사이에서 살며, 직장생활을 하는 두 자녀에게 왕복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기농으로 농사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나주에서 부농이었으며, 자신은 머슴들보다도 더 농사를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개발론자,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주장하는 환경관리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생태론자(ecologist)입니다. 제가 2번째에 속한다면, 친구는 확실히 3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천연의 삶을 즐기며, 비료와 농약 없는 작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추억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중에 밤이 되어 어두운 밀림을 아쉽게 나서야 했습니다.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 | | |
|---|--|---|
|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font-size: small;">1등</p> <p style="font-size: x-small;">노트북</p> |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font-size: small;">2등</p> <p style="font-size: x-small;">아이패드</p> |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font-size: small;">3등</p> <p style="font-size: x-small;">에어팟</p> |
|---|--|---|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주최: 기독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chdailyreporter@gmail.com



공식 타이틀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RESERVATION ONLY | \$500부터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50 ~ \$350



\$350 | 300 | 275 | 250 | 225 | 200 | 180 | 175 | 150
125 | 120 | 115 | 110 | 100 | 90 | 85 | 75 | 70 | 65 | 50

Ticket Price

특별 협찬



MANHEE KOJU FOUNDATION

서울스트리트



A&E재단

3대 은행



AIR PREMIA

ASIANA AIRLINES



radiokOREA



연세메디컬클리닉



hansol INSURANCE



공연 판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459-6802 (월~금, 9AM~6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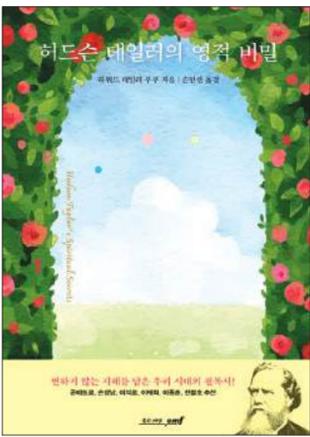
| 상호 | 전화번호 | 주소 | 상호 | 전화번호 | 주소 |
|-------------|----------------|---|-----------------------------|----------------|--|
| 삼호관광 LA | (213) 427-5500 |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 한우리여행사 | (213) 388-4141 |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
| 한남제인 LA | (213) 382-2922 |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 한남제인 델라모 | (424) 955-1234 |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
| 헤이리 카페 | (213) 389-6138 | 755 S. Hobart Blvd. LA, CA 90005 | GC Natural 부에나파크 | (714) 870-7582 | 6081 Dale St. #B, Buena Park, CA 90621 |
| 천종산삼 LA 월서 | (213) 388-1234 |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 천종산삼 부에나파크 | (562) 902-1235 |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
|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 (213) 387-7733 |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 Jamie's Beauty 가든그로브(아리랑마켓) | (714) 356-7773 | 9580 Garden Grove Blvd. #303, Garden Grove, CA 92844 |
| 태양여행사 | (213) 252-9700 |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 도르가서점 가든그로브 | (714) 636-7430 |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오직 믿음으로

허드슨 테일러 “세상 살리려면, 목숨 내주어야...”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

하워드 테일러 부부 | 손현선 역 | 좋은씨앗 | 288쪽 | 15,000원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삶과 신앙을 다룬 책으로, 그의 영적 여정과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낸 그의 일생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의 삶을 알 수 있다
- ◆ 거장의 비밀 :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알 수 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 1832-1905)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다. 영국 반슬리에서 태어나 17세에 회심한 후 22세부터 중국 복음화의 소명을 품고 5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중국 민족을 구원하여 제자로 길러내시는 일에 헌신했다. 교회학교 시간에 선교사 이야기로 내내 들어왔던 테일러의 삶을 이번에 그 후손인 하워드 테일러 부부가 쓴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을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무려 1932년에 초판이 나온 책이다).

단순히 대단한 선교사의 헌신적 삶을 통해 우리 삶을 고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는 영웅의 무용담과 같았다. 얼마나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냈는지 감탄하며 들어왔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영적 비밀을 발견한다. 허드슨 테일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테일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분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허드슨 테일러 개인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어머니나 누이에게 쓴 편지, 개인적으로 기록한 일기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많아서 타인의 시각에서 본 선교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선교사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접 느끼고 헤아릴 수 있다.

테일러는 Faith Mission(믿음 선교)을 모토로 삼고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는 자신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을 온전히 기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자인 하워드 테일러 부부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방식의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했다고 확신했다. 노골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리고 그 필요를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후원 정보를 뿌리는 방식을 그는 거부했다.

그래서 책 전반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얘기한 것처럼 테일러의 선교 단체는 늘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빛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일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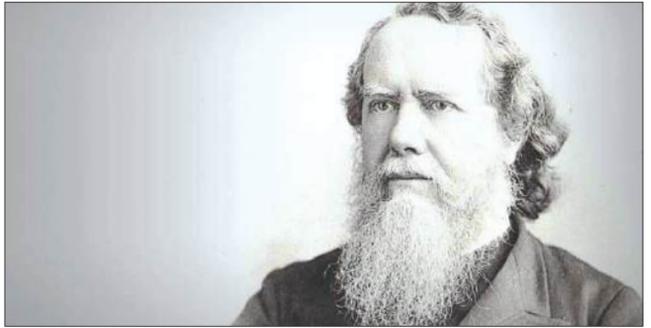
셀 수 없이 많은 고비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일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셨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의 목숨을 내주어야 합니다. 안락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치 않은 삶은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269쪽)”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중국에서 매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위해 자녀들과 아내의 목숨을 내주었다. 중국에 정치적 위기나 극심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날 때, 그가 속한 선교회 사람이 희생되거나 쫓겨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테일러는 “우리에게겐 오로지 한 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다(269쪽)”고 말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했던 고백, “아, 어머니, 제가 얼마나 선교사가 되기를 갈망하는지, 가난한 이들과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다가갈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지,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얼마나 제 삶을 소진하고 싶은지, 주님의 도구로 얼마나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38쪽)”라는 고백이 진심임을 평생 증명했다.

그를 비롯한 중국 선교에 힘쓴 모든 사람들, 조력한 모든 성도들의 섬김은 결코 역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모두 그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 본향을 버리고 떠나면 타지에 와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비롯한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테일러와 그 동역자들은 바다를 건너 그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을 만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와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비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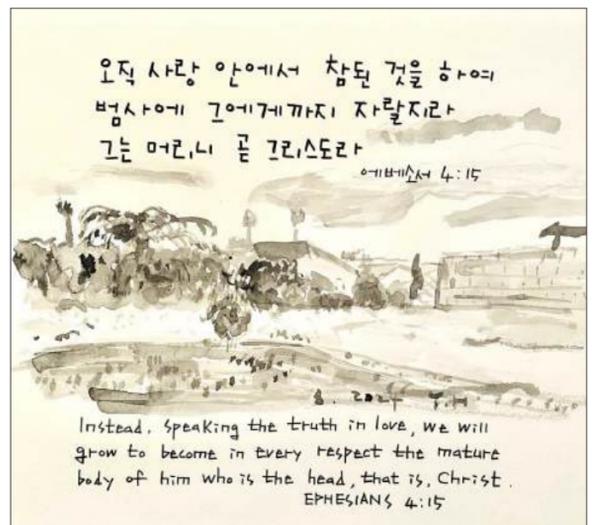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진할 때, 그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진정한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주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허드슨 테일러의 인간적 면모를 발견하고, 또한 그가 얼마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는지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그가 살아낸 영적 비밀을 체득하고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구한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숨쉬며 살았다는 것,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에이리언: 로물루스> (2)

<에이리언> 시리즈가 미국 내 기독교에 대해 말해주는 것



외계인에 의한 인류 창조와 종말 이야기를 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 <에이리언: 로물루스>.

리들리 스콧, 성경에서 소재 차용 인류 위기 대응, 윤리·과학기술로 할리우드, 선진 과학 기술 중시해 미국, 겸손 버리고 우월감 내세워 '데우스 엑스 마키나' 된 과학기술 에이리언 시리즈, 문화 퇴락 증상

에이리언과 성경: 인류 창조, 종말, 영생의 주제를 담은 <에이리언> 시리즈

<에이리언>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세 가지가 있고, 이 셋 모두는 기독교의 가르침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첫째는 인류의 창조, 둘째는 인류의 종말, 셋째는 영생이다. <에이리언> 시리즈는 첫 번째 주제인 인류의 창조에 대해, 외계인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인 인류의 종말과 영생에 대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중 <에이리언>의 메인 빌런 외계 생명체 페이스 허거와 제노모프는 고등한 기술 문명을 건설한 외계인들이 생체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냈다. 극한의 전염력과 공격성을 지닌 페이스 허거와 제노모프는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인류를 창조한 외계 종족을 멸망시켰고, <에이리언> 시리즈 전체를 통해 몇 번이나 인류를 종말 위기에 빠뜨린다.

그 와중에 악덕기업 웨이랜드 유타니사(社)는 인류를 종말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페이스 허거와 제노모프를 연구해 무기로 만들거나 인간의 수명을 무한하게 늘리는 데 사용하려 한다. 이렇게 웨이랜드 유타니사는 외계인들과 인류의 과학기술을 융합해 영생을 달성하려는 지독히도 무모한 시도를 반복하다, 매번 파멸에 가까운 실패를 맞이한다.

<에이리언> 시리즈를 창시한 인물은 영국의 명감독 리들리 스콧이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모든 작품이 스콧 감독에 의해 연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리즈의 출발점이 된 <에이리언> 1편과 프리퀼인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를 직접 감독했고, 이번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는 제작자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스콧 감독은 <에이리언> 시리즈 외에도 여러 편의 걸출한 SF 작품을 감독하거나 제작에 참여했다. SF 대작이자 여러 사이버펑크 장르 작품에 영향을 준 <블레이드 러너>, 성경 창세기의 인류창조와 에덴 동산 기사를 빌려온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의 몇몇 에피소드가 스콧 감독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리들리 스콧의 작품 가운데 상당수, 특히 SF 작품들은 성경에서 소재 및 주제를 많이 차용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 자신이 불가지론자임을 밝혀왔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 알 수도,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따라 그는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세계관과 인간 이해를 수용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수긍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이란 인간의 실존적 현실을 진득하게 반영한 한 편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본성과 인류의 미래 운명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하면서도 복음의 정수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부정한다.

스콧 감독이 그의 작품 속에서 성경적 소재와 설정들을 다루는 방식이 이와 같다. 인류에게는 창조주가 있을 수 있다.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본성이 있다.

스콧 감독은 이런 기독교적 명제들을 일부분 수긍한다. 하지만 인류가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유일하게 현실적인 대응책은 인류가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장안하고 사유해낸 윤리와 과학기술뿐이라는 사고방식이 스콧 감독의 작품 곳곳에서 확인된다.

에이리언과 미국: 과학주의로 신앙을 대체하는 미국식 자본화 우월주의

물론 인류가 스스로 내놓은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해답 혹은 대응책은 윤리적·기술적으로든 여러모로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스콧 감독도 작품 속에서 이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현실성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이 진리로 입증할 수 없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 스콧 감독의 생각이다.

그래서 <에이리언> 시리즈 전체에서, 특히 스콧 감독이 직접 연출하거나 제작에 참여한 작품들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적 믿음들이 인간의 합리적 윤리와 실증적 과학기술에 비해 열등하고 구태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는 근현대 영미철학을 특징짓는 실증주의와 합리성 중심의 세계 이해를 심층 반영하는 시작이다.

스콧 감독은 40세까지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고, 그 이후로는 46년이 넘게 미국 할리우드 대표감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SF 작품이 흥행하려면 영미권 관객들, 특히 미국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경제·군사·대중문화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전까지, 미국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상당히 짧은 역사 때문에 미국 문화는 그저 영국 문화의 열화판 정도로만 취급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문화사적 배경과 깊이가 비교적 얕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위치를 차지하면서 팍스 아메리카에 걸맞는 문화적 영

향력을 갖춰야 했다. 이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문화요소로 세계에서 가장 힘있게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의 힘으로 빠르게 발전한 선진 과학기술을 택했다.

할리우드 역시 이런 성향을 충실하게 따른다. 유독 할리우드 작품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나 인권 관련 작품이 많은 이유, 그리고 무신론적이고 과학주의적인 SF 작품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확립 전의 미국,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 비해 열세에 있던 후발주자로서의 미국은 그 문화의 중심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가르침을 짝 채워넣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내세울 것이 변변치 않았던 까닭에, 나라의 문화적 약점과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책으로 기독교 신앙에 많이 의지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군사적·물질적으로 기존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을 압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국 문화는 기독교적 겸손을 버리고 국가주의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 시리즈는 이 같은 미국 문화 속 신앙 퇴락의 대표적 증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미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국가적·문화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 대중문화 속에서 실증적 과학기술이 미국인들의 세계관과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사고의 열개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존해 문화와 문명을 일궈 나가려 하던 자세가 사라진 대신, 미국의 물리적 힘을 뽐낼 수 있게 해주는 자연과학이 모든 문제에 대한 초월적 해답, 즉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과학기술의 힘은 사망과 종말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FOR MORE INFO



SCAN ME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종교개혁의 세 기둥: 루터, 츠빙글리, 칼빈”

루터: 이신칭의로 새 기독교 탄생
츠빙글리: 가톨릭 부패·모순 고발
칼빈: 현대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

마스터스 세미나리 오픈강좌가 지난 8월 3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앞 바로선개혁교회에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13차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마스터스세미나리 책임연구원 최더함 박사(역사/변증신학)가 강의에 나섰다. 마스터스 오픈강좌는 지난 6월 12차 강좌에서 ‘종교개혁 전야’인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중반까지 ‘나쁜 교황들의 시대’를 다룬 바 있다.

최더함 박사는 ‘종교개혁의 세 기둥’인 핵심 인물 3인으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울리히 츠빙글리(Ulich Zwingli, 1484-1531),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꼽으면서, 이들 3인의 후계자 필립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과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 존 나스(John Knox, 1513-1572)의 사상까지 다뤘다.

먼저 루터에 대해 “1517년 95개조 반박문(Theses)을 내걸고 십자가 신학과 감추인 하나님을 강조했다. 불굴의 의지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정신을 남겼다”며 “무엇보다 유입된 의가 아닌 전가된 의,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확고한 구원론을 정립해 당

대 로마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에 일격을 가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츠빙글리에 관해선 “‘67개 신조’를 통해 로마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모순 등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시민들의 반발에도 당시 성경에 따라 용병 제도를 비판했다”며 “목숨을 걸고 로마가톨릭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불잡힌 그는 고해성사 요구를 거부했고, 시신이 4등분되는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칼빈과 관련해선 “평생 종교개혁을 실천하면서 논문 113권, 주석 34권, 10편의 성경강의, 32편의 설교집 등 총 189권의 저작과 689개 서신을 남겼다”며 “현대 사회 많은 분야가 칼빈주의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저술함으로 개혁교회의 기초를 닦았다”며 “1536년 27세 때 초판을 펴낸 <기독교 강요>는 3년 뒤인 1539년부터 계속 증보판을 거듭해 1559년 최종판이 완성됐다”고 했다.

루터와 칼빈의 차이에 대해, 먼저 “복음 이해는 일치했으나, 율법 이해가 달랐다”며 “루터에게 율법과 복음의 구별은 근본 핵심이었으나, 칼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루터는 율법의 신학적 용도는 인정했지만 율법에 대한 바울서신의 교훈과 예수의 직접적 말씀의 교훈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본 반면, 칼빈은 율법도 구원 계시이고 복음도 구원 계시로서 은혜언약에 속하며, 율법은 복음처럼 명확하



최더함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지 않지만 예표와 그림자(롬 3:1, 16:26)로 보았다”고 대조했다.

또 “루터는 ‘십자가 신학’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칭의’를 강조했다”고 비교했다.

셋째로 “루터는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경은 성경 자신의 해석자’라는 성경해석 원리에 복종해야 한다고 봤다”며 “반면 구약은 율법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그런 점에서 구약보다 신약에 복음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를 사도성과 복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다”고 했다.

반면 “칼빈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전제한다. 구약과 신약에 다른 점이 있고, 언약들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며 “그는 야고보와 바울 간에 겉으로 보이는 모순이 아니라 내용상 조화점을 찾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최더함 박사는 “종교개혁이 남긴 교훈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는 점이다. 언제나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며 “그 3가지 중심 사상은 ①하나님 중심 ②성경 중심 ③교회 중심이다. 그리고 5가지 ‘솔라(sola)’는 ①오직 성경 ②오직 믿음 ③오직 그리스도 ④오직 은혜 ⑤오직 하나님께 영광 등”이라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미군 장교, ‘성경적 성’ 소신 밝혔다가 직위 박탈당해

미국의 한 육군 보병 장교가 LGBT와 관련해 기독교적 관점을 표현한 후, 지휘관직을 박탈당하고 사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교는 아이다호 육군 방위군 소속으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부하의 불만 제기로 지휘관직을 박탈당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의 법률 로펌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지난 8월 21일 “(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달 초 브래드 리를 아이다호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장교는 R. 데이비스 윌슨 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으며, 리버티카운슬도 이 사건에 참여해 30일까지 응답을 요청함으로써 추가 법적 조치를 막았다.

리버티카운슬에 따르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한 하급 간부가 지난해 이 보병 장교를 상대로 ‘평등 기회’(Equal Opportunity, EO) 불만을 제기했다. 이 장교는 인간의 성에 대한 자신의 기독교적 견해를 표현하며, 성경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동들에게 사춘기 차단제나 이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관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불

만을 제기한 하급 간부는 그 장교의 발언이 “LGBTQ 공동체에 대한 깊은 혐오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버티카운슬은 그 장교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고, 종교나 정치적 차이와 상관없이 부하들을 통솔한다고 반박했다.

리버티카운슬은 주지사에게 보낸 장문의 서한에서 “LGBTQ라고 밝힌 군인들은 군대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수용해야 하며, 보호받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관(또는 부하)에게 거짓 평등 기회 불만 또는 기타 혐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거짓 고소는 군의 질서와 규율을 방해한다. 여기서 ‘내 발언은 허용되지 않지만 너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분법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 근거 없고 차별적인 AR 15-6 조사는 하급 간부가 군대 밖에서 자신의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장교에 대해 거짓 EO 불만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만 제기 후, 아이다호 육군 방위군은 해당 장교를 지휘관직에서 해임하는 대신, 장교의 개인 기

록에서 부정적인 표시를 삭제하고, 그가 처벌 없이 사임해 와이오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방위군은 와이오밍 직위가 해제되기 전까지 부정적인 표시를 삭제하지 않았고, 장교가 정해진 날짜까지 사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구절을 사용해 그를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버티카운슬은 장교의 복직과 ‘평등 기회 불만’ 신고의 기각을 주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아이다호 육군 방위군 조사관이 권고한 ‘기독교인 지휘관 임명 금지 정책’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사관은 아이다호 육군 방위군에 향후 복무 후보자들의 종교적 및 정치적 신념을 면밀히 검토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Clay Banks/ Unsplash

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후보자의 신념에 대한 우려가 입증되면, 방위군은 해당 후보자를 ‘극단주의자’ 또는 ‘내부 위협’으로 간주해 국방정보국에 보고하고, 국방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다호 방위군 대변인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지도부가 허위 신고 의혹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유진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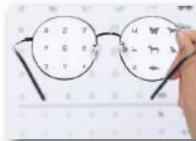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